

2014년 제1차 통합과 소통의 국어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지명에 드러난 지역어와 지역 문화

- ◆ 주최 : 국립국어원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 ◆ 주관 : 한국지명학회 ·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 ◆ 후원 : 전남대학교
- ◆ 일시 : 2014년 6월 13일(금) 14:00~17:10
- ◆ 장소 :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시청각실

◆ 포럼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30	등록 및 접수	
	개회식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4:30~15:00	개회사	· 손희하(한국지명학회장)
	축 사	· 민현식(국립국어원장)
	축 사	· 이삼형(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대표)
	발 표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5:00~15:30		■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 발표 : 김정태(충남대)
15:30~16:00		■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기존 정책 제정법 정책과 관련하여 · 발표 : 오창명(제주대)
16:00~16:30		■ 도로명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 발표 : 손희하(전남대)
16:30~16:40	휴식	
	종합토론	○ 사회 : 조재형(전남대)
16:40~17:10	토론회	김무림(강릉원주대), 손용택(한국학중앙연구원), 이상규(경북대), 정재영(한국기술교육대)
17:10~	폐회, 간담회	

<모시는 말씀>

여기저기 모내기가 한창입니다.

튼실한 알곡, 풍요로운 가을을 꿈꾸면서 한국지명학회가 포럼 마당을 펼칩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국어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정책적 검토: 지명에 드러난 지역어와 지역 문화"란 주제를 가지고, 국립국어원·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주최 및 한국지명학회·한국어문학연구소 주관으로 6월 13일(금)에 전남대학교에서 엽니다.

현재 헌법소원이 제기된 '새 도로명 주소'로 말미암아 지명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진 이때에, 조상이 남겨 준 소중한 문화유산인 지명에 대한 정책·법·도로명 주소 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대형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제도·체제·구조에 대한 반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과 법과 시행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이제 지명 정책·지명법·도로명 주소 등을 가지고 토론의 장을 만들고자 하오니 관련 연구자, 전문가는 물론이거니와 관심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고 귀중한 조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4년 6월 2일(단옷날)

한국지명학회 회장 손희하 드림

<발표 1>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에 대한 국어 정책적 접근

김정태(충남대)

목 차

1. 서론
2. 지명과 지역어
3. 지명과 지역 문화
4. 결론

1. 서론

일찍이 최현배(1966)에서는 지명 연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 우리의 역사·지리·풍속·제도 등 문화 생활의 연구에 도움될 것이요
- 우리의 옛말·말소리의 변천·말의 꼴과 뜻의 변천·배달말의 계통들 언어 과학적 연구에 도움될 것이요
- 배달 겨레의 성립 및 이동에 관한 연구에 무슨 기틀을 줄 수 있을 것이요
- 우리와 이웃 겨레와의 겨레스런, 문화스런 관계의 천명에 필요한 자료를 대어줄 것이요
- 뒷날에 우리 나라의 땅이름을 순 우리말로 되살리는 경우에는, 크게 소용될 것이다.

(한글학회(1966) 「한국지명총람 I」 (서울편) 머리말)

지명이 언어로서의 연구 대상에 머물지 않고 해당 지역민들의 문화를 연구할 수 있는 대상도 되어 준다. 즉 학문의 여러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무형의 고고학적 자료’(도수희 1994:8)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명은 종합 학문이다.¹⁾

1) 본고에서 ‘종합’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한 것이다. 지명 연구의 목적이 지명의 특징을 구명하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목적을 위해 지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별적 접근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전래하는 지명을 우리 문화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지역중심주의(Localism)의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본고도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 지역의 고유 문화로서 지명에 담긴 지역어와 지역문화의 특징적이고 이질적인 면을 찾고자 한다.²⁾ 즉 전래지명에 담겨있는 언어로서의 지역어와 생활로서의 지역 문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일차적으로 지명은 언어의 형태(구어, 문어)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언어를 어떤 형태로든 반영하였을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민들에 의해서 형성된 지역적 문화(특화된)도 전래하는 지명에 담겨 있을 것으로 본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지명은 ‘대전 지역’의 전래지명이다. 주로 이 지명어와 지역어³⁾와의 대비에서 같은 점과 차이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 차이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지명에 지역어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전의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징(기준)을 설정하여 지명에 반영된 구체적인 지역 문화도 발견하여 목적 달성을 도모코자 한다.

2. 지명과 지역어

2.1. 일반적으로 지명어는 지역어(방언)를 반영하고 있을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지명어와 지역어는 동일 공간에서 토박이들과 공존해 왔고, 현재도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명과 지역어는 ‘보수성’ 등 공통의 특징들에 주목하여 왔다.

지명이 지역어보다 사용빈도가 높다거나 이들의 언어 단위에 있어서 다르다는 점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 지명과 지역어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적기도 하였거니와 지명어를 지역어의 일부로 보는 시각에 묻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고는 지명의 지명소와 지역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명에 지

으로서의 ‘종합’적인 경우도 있고, 또한 지명에 대한 입체적인, 융복합적 연구 가능성으로서의 ‘종합’ 학문이다. 근래 지명 연구는 전자에서의 방법이 대세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 이러한 논의는 잠정적으로 지명 문화의 글로컬리즘(Glocalism)을 추구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대전과 우리나라의 지명 문화를 동질화하고, 나아가 다른 나라의 지명 문화와도 동질화하면서 궁극적으로 한국의 지명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여 우리의 문화와 전통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본고의 언어 자료는 행정 구역 상 대전광역시 지역의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대전시 유성구의 언어이다. ‘방언’이란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지역어’란 용어를 쓴 것이 아니다. 편의상 대전지역의 언어를 ‘지역어’로 부른 것뿐이다.

본고의 자료는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면대면 조사에 의해 채록한 것이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박은배(남, 78),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새터마을)

아울러 2014년 5월 21일 몇몇 어휘에 대해 재답사를 실시하였다. 제보자는 다음과 같다.

- 김창선(남, 70) 유성구 계산동

- 유만선(남, 76) 유성구 구암동

역어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지명어는 ‘전부+후부’ 지명소의 구성이다. 전부지명소는 지명의 생성 정보 등을 주로 담고 있고, 후부지명소는 지명의 유형을 알려 준다.

2.2. 먼저 전부지명소와 지역어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 (1) 질마바우(鞍岩)[바위](유성-화암) 지푼댕이들[들](유성-성북)
상나무골[마을](유성-상대)
생교말~생저말~향교말~행교말~행저골~교촌(校村)[마을](유성-교촌)
산제당골~산지당골[골](유성-세동) 땀띠기쌈~쌈[쌈](유성-계산)
서낭당이~서낭댕이[골](유성-세동)
벼락수[폭포](유성-신성) 삼계(三溪)>생계[마을](유성-어은)

(1)의 전부지명소에는 많은 음운현상을 반영한 지명소들이 있다. ‘길마→질마, 향나무→상나무, 산제당→산지당, 서낭당이→서낭댕이, 벼락→벼락, 삼계→생계’ 등이 보인다. 소위 ㄱ, ㅎ-구개음화, 모음상승, 움라우트,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조음위치동화 현상들이다. 이들은 중부방언의 대표적인 음운현상이요, 이 지역어의 음운현상으로도 나타난다.

- (2) ㄱ. 바깥뺨골, 안뺨골[들](유성-둔곡)
 까치모랭이[모롱이](유성-덕명)
- ㄴ. 뺨산날(뺨)[산](유성-방동) 팽남쌈거리(쌈)[거리](유성-대정)
 치마바우~치매바우[바위](유성-대정)
 모가나무골~모개나무골[마을](유성-대정)
 여수바우(狐岩)[바위](유성-신성) 여수박골[골](유성-복용)
 구수고개[고개](유성-어은) 구수마루[들](유성-교촌)
 도치부랭이~도치부렁이[거리](유성-대정)

아울러 (2ㄱ)의 ‘바깥, 안, 까치’ 등은 중부방언과 같이 하는 이 지역어의 실현이며, (2ㄴ)은 특징적인 지역어를 반영한 어휘들이다. 즉, ‘뺨, 쌈’에 대한 ‘뺨, 쌈’, ‘치마, 모과’에 대한 ‘치매, 모개’ 등은 이 지역어의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우, 구유, 도끼’에 대한 이 지역어가 ‘여수~여우, 구수, 도끼~도치’로 사용되는데, ‘여수, 구수’는 ‘여우, 구유’의 이전형태이며, ‘도치(<도척)’는 중세국어에서 ‘도끼(<돛귀)’와 쌍형어를 이루고 일부 지역어에만 남아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지명어에서 의미있는 지역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명어는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명에 사용된 언어로서 별도의 변이과정을 보이기도 하고, 지역어와 달리 지명어는 단어라는 언어 단위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제약, 지역어보다 보수적이라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본다.

(3)에서 ‘부엉이, 거북이, 뚝북이’의 지역어는 ‘뿡이, 거부기, 뚝뽀기’인데, 전부지명소에서 ‘뿡, 거북, 뚝북’처럼 축약 또는 탈락형을 보여준 경우이다. 그리고 ‘참나무, 감나무, 팽나무’도 지명어에서 말모임 탈락형 ‘남(<나무)’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어에서 발견되지 않는 형태이다. 그런데 ‘나무’에 대한 ‘남’의 실현이 후부지명소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전부지명소에서만 나타나기에, 지명어의 구조적인 제약에 기인하는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구석’도 이 지역에서는 ‘구석~구탕이’로 실현되는데, 지명어에서는 ‘ㅅ’ 음운사와 관련된 ‘구역~꺨’의 형태가 지명에 나타나고 있다.⁴⁾ 즉 전부지명소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축약 및 탈락의 결과로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⁵⁾

- (3) 뿡바위~부엉바위~봉암(鳳岩)[바위](유성-봉산) 뿡데미[산](유성-안산)
- 거북바위~바우[바위](유성-송정)
- 뚝부기삼(쌈)~뚝북삼(쌈)[쌈](유성-지족)
- 참남배기~참몰배기[마을](유성-원신흥) 감남골[골/마을](유성-전민)
- 팽남쌈(쌈)[쌈](유성-대정) 팽남쌈거리(쌈)[거리](유성-대정)
- cf. 팽나무거리[거리](유성-방동) 상나무골[마을](유성-상대)
- 둥구나무/정자나무[나무](유성-계산)
- 꺨말[마을](유성-대정) 구역들~꺨들[마을](유성-세동)

(4)도 이 지역어와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전부지명소들이다. (4ㄱ)의 ‘불무(治), 괴(貓)’는 이 지역에서 ‘풀무, 팽이~고양이’로 실현된다. 역사적으로 ‘불무>풀무, 괴(<고니)+양이>고양이’와 같은 발달과정을 고려한다면, 전부지명소의 ‘불무, 괴’는 고어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한(大, 多, 廣), 밀(<미르, 龍), 잣(城), 징계(<증계, 樹)’ 등은 소멸된 어휘들이고, ‘달(山, 高), 다락(달+악)’ 등은 고대어 형태소이다.

이와 같이 (4)의 전부지명소는 이 지역어에서 발견할 수 없는 어휘들이다. 다만, ‘한-’만 화석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러한 차이는 지명어가 고대의 언어 사실을 더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요, 국어의 사적인 연구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농기구 ‘호미’에 대한 이 지역어는 ‘호맹이~호미’이다. (5)의 ‘호무’는 대체로 전라 지역의 방언형인데, 이 지역의 지명에서 발견되는 한 예가 특이하다.

- (4) ㄱ. 불무산[산](유성-금고) 불뭇골[골](유성-금탄, 유성-복용)
- 괴바위(우)~계바위(우)~묘암(貓岩)[바위](유성-송정)
- ㄴ. 한우물~대정리(大井里)[마을](유성-대정)
- 밀머리~용계(龍溪)[마을](유성-용계)

4) 역사적으로 ‘구석’은 ‘ㅅ’의 음운사와 관련없는 어휘이다. 유추에 의한 변이형인지 후대인의 어원풀이인지 더 고구되어야 할 지명소이다.

5) 지명어의 축약 및 탈락 현상에 대해서는 김정태(2008) 참조

жат뒤~성북(城北)[마을](유성-성북)

징계골~쟁계골~쟁기골[골](유성-방동)

달봉~월봉(月峰)[산](유성-학하) 다락골[골](유성-방동)

(5) 호미다리~호무다리[들](유성-장대)

이와 같이 전부지명소는 후부지명소와 수식의 관계에서 지명의 유래 등 제 정보를 알려 주는 많은 어휘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적으로 이 지역어를 담고 있으면서, 지역어보다 더 보수적인 언어 형태를 간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3. 다음으로 후부지명소와 지명어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자. 지명에서 후부지명소는 지명의 갈래로서 ‘마을(洞, 村)’인지, ‘골(谷)’인지, ‘내(川)’인지 등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지명의 유형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에 사용된 어휘도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다.⁶⁾

오늘날 이 지역어는 ‘洞, 村’에 대해 ‘마을, 동네’가 사용된다. 애초에 ‘마을(<마을), 고을’이 쓰였을 것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명에 ‘-마을, -고을’이 사용된 것이고, 여기에서 축약현상이 나타나 (6ㄱ, ㄴ)처럼 ‘-말, -골’이 실현된 것이다. 아울러 후대에 형성된 마을은 지역어 ‘동네’를 반영하여 ‘-동네’ 지명어(6ㄷ)도 형성되었다. 반면 지역어는 ‘마을, 고을’이 쓰이다가 ‘동네’가 등장하면서 ‘고을’이 없어지고, 지금은 ‘마을’의 사용빈도도 줄어들었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마실 나간다’ 등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지명어가 지역어를 반영하였으되, 지역어의 옛 형태를 반영하여 간직하고 있는 것이요, 보수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세 이래 ‘ㄱ’과 ‘y’ 아래에서 실현된 ‘ㄱ’ 탈락형도 지명은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그리하여 후부지명소와 지역어는 공시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6) ㄱ. 작골~작곡(鵲谷)[마을](유성-안산) 상나무골[마을](유성-상대)

ㄴ. 선창말[마을](유성-도룡) 새말~신촌(新村)[마을](유성-어은)

ㄷ. 새울[마을](유성-신봉) 배울[마을](유성-관평)

ㄹ. 새동네[마을](유성-궁동)⁷⁾ 담너머동네[마을](유성-원촌)

‘산과 산 사이에 움푹 패어 들어간 곳’을 이 지역에서는 ‘골짜기’라 한다. 그런데 지명의 갈래로서 이 골짜기가 후부지명소로 쓰일 때는 단음절의 ‘골’만 쓰이고 있다.(7ㄱ) 또한 고대 형태소로서 한계어의 ‘실(谷)’이 이 지역의 지명어에서 발견되고 있다.(7ㄴ)

반면 (8)의 ‘고개’에 대해서도 지역어로는 ‘고개’이지만, 후부지명소에는 ‘고개’뿐만 아니라 고어의 화석으로 ‘재’와 ‘티’도 발견된다.

6) 성희제(2010)에서 38개를 전래지명의 후부지명소로 제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 38개의 한정된 어휘가 후부지명소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 대표적인 후부지명소에 국한된 논의임을 밝혀 둔다.

7) ‘새동네’는 1970년대 후반에 형성된 마을이다.

- (7) ㄱ. 절텃골[골](유성-장동) 불당골[골](유성-대정)
 절골(寺谷)[골](유성-성북)
 ㄴ. 공사실[골](유성-지족) 소라실[골](유성-지족) 오리실[골](유성-계산)
- (8) ㄱ. 가룬고개[고개](유성-갑동) 동산고개[고개](유성-송강)
 ㄴ. 덕진재[고개](유성-둔곡) 이랭이재~아라재[고개](유성-대정)
 ㄷ. 왕재~왕티(王峙)[산](유성-반석) 대곡티(大谷峙)[고개](유성-덕진)

한국방언자료집 IV(충청남도 편 1990)에 제시된 이 지역어의 ‘도랑-개울-내’는 ‘또랑-개울-내’이다. 그러나 필자의 최근의 답사에서는 ‘내(川)’ 대신 ‘냇물’만 제보 받았다. 따라서 (9ㄱ)은 ‘또랑’과 ‘내’라는 이 지역어를 후부지명소가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냇물’은 지명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한자어화에 의한 ‘천(川)’이 후부지명소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후부지명소도 지역어를 반영하였으되, 변이된 지역어까지는 아직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다.

- (9) ㄱ. 반진또랑[내](유성-원신흥)
 황새북들내[내](유성-상대) 작은내[내](유성-원신흥) 명수(시)내[내](유성-용계)
 ㄴ. 진잠천(鎭岑川)[내](유성-원내) 건천(乾川)[내](유성-학하)

‘샘(泉)’과 ‘바위(岩)’에 대해 이 지역어는 ‘삼~쌈’, ‘바우~바위’로 교체 실현되고 있다. 지명의 후부지명소에서도 이와 같은 실현을 확인할 수 있다. ‘쌈’과 ‘바위’로의 교체가 지역어와 지명어에서 공히 발견되는데, 학습의 결과인지 더 고구되어야 할 부분이다.

- (10) 용삼[쌈](유성-둔곡) 고무삼~고무쌈[쌈](유성-구암)
 땀띠기쌈~삼[쌈](유성-계산)
 cf. 두레삼골[마을](유성-용산)
- (11) 아들바위~아들바우[바위](유성-대정)
 뿡바위~부엌바위~봉암(鳳岩)[바위](유성-봉산) 부엌바우[바위](유성-도룡)

논이나 밭 언저리, 또는 냇가에 움푹 파여 물이 꺾여 있는 곳을 웅덩이라 한다. 웅덩이에 대한 이 지역의 방언형으로는 ‘뚝뚝’과 ‘툼뚝’이 있다. (12ㄱ)에서는 ‘뚝뚝’이, (12ㄴ)에서는 ‘툼뚝’이 후부지명소로 쓰였는데, 지역어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지역어로는 ‘웅덩이’의 변이형인 ‘웅뚝이(<웅뚝이<웅뚝이)’가 있지만, 지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 (12) ㄱ. 도깨비뚝뚝[뚝](유성-구암)용뚝뚝[뚝](유성-세동)
 cf. 뚝뚝골[골](유성-방동)
 ㄴ. 물툼뚝(동안)[툼](유성-자운)

지명어는 고착성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결코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살아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어와의 대비의 어려움이 있다. 후부지명소도 예외는 아니다. 이 후부지명소는 보수적인 어휘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어휘도 제한적이다. 그렇지만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실(谷), 울(<골, 洞), 티(峙), 재(峴)’ 등 고어 형태를 더 간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결국 지명은 지역어를 반영하고 있어 지역어와 같은 가치를 부여해도 무관할 듯하다. 아울러 지역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지명소들은 지명어의 특징이 된다.

3. 지명과 지역 문화

전래하는 지명은 오랫동안 지역민들과 함께 해 왔다. 따라서 지명에 지역민들의 생각과 생활이 담겨 있을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테면, 다양한 생각과 생활을 대상물에 담아냈을 것이다. 소위 지역 문화의 반영이다.

- 피아골의 산물
당진⁸⁾의 역사
갯뒤의 유적

<지역 문화> : 지역성 반영

1) 종교 문화 : 주민의 생활사와 함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절실하게 형성 전개되었다.

첫째, 원시적, 토착적 민간 신앙의 반영이다. 즉 샤머니즘적 신앙과 같은 민중 의식이 지명으로 연결된 경우이다. 장승, 성황당(고개마루나 산밑 길가 정자나무에 기댐), 돌탑, 제단, 기도터 등에서 제를 올리고, 가정과 마을의 안녕 풍요를 기원한다. (13ㄱ)처럼 ‘산제당’이 있고 정월 초 산신제를 올린다. 이와 같은 전통 신앙이 반영된 ‘당산’이라는 모지명(母地名)은 ‘당산방죽, 당산뿔고라실’과 같은 자지명(子地名)으로도 외연을 확대한다. (13ㄴ)처럼 서낭당도 있고, (13ㄷ)처럼 기자신앙(祈子信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기자 신앙은 지역민 삶의 근원 문제이다. 그들의 관념이 지명에 투영된 것이다.

- (13) ㄱ. 산제골(山祭-) [마을] (유성-구암) 산제당(山祭堂) [제당] (유성-덕명)
 산제당골(산지당골) [골] (유성-대정) 산제당(산지당) [제당] (유성-용계)
 산제당골 [골] (유성-성북) 산제당골~산지당골 [골] (유성-세동)
 당산(堂山) [山/마을] (유성-북용)
 cf. 당산방죽 [못] (유성-북용) 당산뿔고라실 [들] (유성-북용)

8) 백제 벌수지현(伐首只縣)을 신라 경덕왕 16년에 당진현(唐津縣)으로 개칭한 것이다. 당나라와 통하는 항구(나루)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당산말[마을](유성-대정) 당산앞들[들](유성-대정)
 ㄴ. 서낭당이~서낭댕이[골](유성-세동) 서낭당[마을](유성-문지)
 ㄷ. 칠성바위[바위](유성-교촌) 아들바위[바위](유성-대정)

둘째, 명당 신앙의 반영(풍수지리)

- (14) 초숫골[마을](유성-하기)⁹⁾ 장고개(長峴, 노루고개)[마을](유성-궁동)¹⁰⁾
 도독골[골](유성-대정)

셋째, 외래 신앙 : 전통적 민간 신앙과 습합되어 전개되는 형편이다.

- (15) 절터골[골](유성-장동) 엄불고개[고개](유성-계산)
 한절골(寒寺谷)[들](유성-교촌) 절골(굴골)[골](유성-덕명)
 절터골[골](유성-지족) 불당골[골](유성-대정) 절터[골](유성-원내)
 절골(寺谷)[골](유성-성북) 절터골[골](유성-전민)
 불당재[고개](유성-세동) 불당재~불당산[산](유성-안산)

넷째, 수운교¹¹⁾ 관련 지명 (1927년 수운교주(水雲教主) 이상룡(李相龍)이 세운 교인들의 마을)

- (16) 만선동(萬仙洞)[마을](유성-추목) 선인동(仙人洞)[마을](유성-추목)
 자선동[마을](유성-추목) 천복동[마을](유성-추목)
 천단(수운교 도솔천)[유적](유성-추목)¹²⁾

종교(신앙)와 관련된 지명은 오랜 세월 집단 기억에 의해 형성, 전승된 것이므로 비교적 역사성을 갖춘 것이다.

2) 사상 문화 : 유교

유교문화의 유적(향교와 서원, 사우 등)으로도 남아 있는 것이다.

- (17) ㄱ. 향교골[마을](유성-덕진)
 생교말~생저말~향교말~행교말~행저골(校村)[마을](유성-교촌)¹³⁾

9) 북쪽에 玉兔望月形의 명당이 있다.

10) 幼獐顧母形의 명당이 있다.

11) 수운교는 한말 이상룡(李象龍)이 창시한 신흥종교이다. 유(儒)·불(佛)·선(仙)의 무량대도(無量大道)를 현실세계에 널리 보급하여 사람을 지극히 섬기며, 영세의 행복을 누리고 덕(德)을 천하에 펼쳐 창생을 구제한다는 것을 교의(教義)로 삼고 있다.

교인은 경천(敬天)·배불(拜佛)·주문(呪文)·청수(淸水)·공덕미(功德米)의 치성을 잘 지켜야 한다. 이상룡은 출가(出家)한 증으로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에서 도를 깨닫고 각지를 순례하던 중 충청남도 청양군에 머물 때, 불교를 토대로 하고 수운(水雲) 최계우(崔濟愚)를 부처의 후신이라 하여 그를 교조로 삼아 이 교를 세웠다.(두산 백과)

12) 대전문화재자료 제12호

행저골삼~샘[샘](유성-교촌) 하마비거리[거리](유성-교촌)¹⁴⁾

생교터(향교터)[터](유성-원촌)

ㄴ. 서당골[마을/골](유성-상대, 죽동) 서당골[골](유성-대정)

서당골~절골[골](유성-원신흥)

ㄷ. 서원말~선말~원촌(院村)[마을](유성-원촌)¹⁵⁾ 서원산나루[나루](유성-원촌)

3) 인물/가문/집성

대전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주민이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화유적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남긴 곳이다. 성씨와 인물이 형성되는 것은 조선시대이다. 대전지역에 입향하는 씨족들은 대체로 조선 초기에서 시작되어 15·16세기 활발하게 번창되어 이 지역의 토족으로 자리하고 향권을 주도하게 된다.

(18) 홍산(洪山)[산](유성-구암)¹⁶⁾ 목산(睦山)[산](유성-복용)¹⁷⁾

설목(雪目)[마을](유성-화암)¹⁸⁾ 전촌[마을](유성-전민)

박산(朴山)[산](유성-복용)¹⁹⁾ 박산(朴山)[산](유성-용계)

박산[산](유성-수남)

황촌(黃村)(계명촌)[마을](유성-장대)²⁰⁾

4) 유적 문화 : 대전시 둔산 지역 외 여러 곳에서 선사 유적이 발견되었다.

삼국시대 백제의 동쪽에 위치한 대전은 신라와 경계를 이루었다. 신라와의 전투가 잦았고, 그런 만큼 산성이 발달하였다.

(19) ㄱ. 성북산성 : 삼국시대 석축산성

성문안[골](유성-성북)

성문이들[들](유성-성북)

성재(산장이재)[고개](유성-성북)

성재골[골](유성-성북)

жат뒤(城北)[마을](유성-성북)

아랫жат뒤(디)(下城北)[마을](유성-성북)

웃жат뒤(디)(上城北)[마을](유성-성북)

ㄴ. 안산동 산성 : 백제산성

성재[산](유성-안산)

작골(鵲곡)[마을](유성-안산)²¹⁾

13) 마을 뒤 진잠 향교가 있다.

14) 말에서 내렸던 거리, 이 뜻을 알리는 下馬碑가 있다.

15) 서생과 학사를 배출한 ‘崇賢書院’(회덕 일대 학문의 중심적 위치, 名賢을 모신 祠宇)이 있던 마을이다.

16) 홍씨 문중의 산이다. 남양 홍씨가 대전에 처음 입향한 곳은 유성 반석동이다.(16세기 초)

17) 泗川 睦氏의 先塋이 있다.

18) ‘설목’이란 사람이 처음 살아서 마을이 되었다.

19) 高靈 朴氏 門中의 산이다.

20) 6,25때, 황해도 사람들이 피난와서 정착 형성된 마을이다.

21) 까치집 모양의 봉우리 셋이 있다.

5) 생업 문화 : 농업, 공업, 상업 생활 문화의 반영

- (20) 삼밭골[마을](유성-송강)²²⁾ 진밭산[산](유성-송정) 국논[들](유성-상대)
사기막골(사그막골)[마을](유성-계산)²³⁾ 사기정골(사기장골)[골](유성-계산)²⁴⁾
옷골모랭이~옷골모통이[마을](유성-궁동)
점말(店-)[마을](유성-갑동) 유성장터[터](유성-장대)

6) 행정 문화

- (21) 향청(鄉廳)~상청[터](유성-원내)²⁵⁾ 향청재~상청재[고개](유성-원내)
진터벌[마을](유성-구암)²⁶⁾
창말~창리(倉里)[마을](유성-구암)²⁷⁾
궁말~궁리(宮里)[마을](유성-구암)²⁸⁾

4. 결론

전래하는 자연지명은 토박이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다. ‘마을, 골, 내’ 등 대상을 다룬 대상과 구별하기 위해 명칭 표준화에 준하는 ‘전부+ 후부’의 구성으로 정해져 후대로 전래하는 것이다. 이때 전래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의 언어와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래지명에는 토박이들의 지역어와 지역 문화가 담겨 있는 것이다.

지역어의 반영은 전부지명소에서 생산적이다. 전부지명소는 지명 생성에 대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어휘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정된 어휘가 사용되는 후부지명소에서도 지역어의 반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명어는 지역어와 달리 고어 형태나 사어가 화석으로 잔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어보다 더 고착적이고 보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 문화는 지역 토박이들의 생각이나 행동, 생활양식이 전개되면서 형성된다. 이러한 지역 문화는 지역의 특징 문화로서 지명어에 반영된다. 이 지역의 문화도 지명어의 전부지명소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테면, 토속적이고 전통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외래 종교에 대한 신념이나 해위 등이 지명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물이나 가문, 생업 문화, 유적 문화 등이 지명에 반영되어 문화로서의 한 특징을 이루고 있었다. 문화로서의 지명어의 가치이다.

22) ‘삼밭’이 있었다.

23) 고려시대의 사기소가 있었다.

24) 사기소가 있었고, 사기 팔던 장이 섰던 곳이다.

25) 조선시대 진잠현(鎭岑縣)의 향청(鄉廳)이 있던 곳이다.

26) 조선 시대 왜군이 침입했을 때 군대가 진을 쳤던 곳이다.

27) 곡식 쌓아둔 창고가 있었다.

28) 유성현(儒城縣)이 있었던 중요한 마을이다.

따라서 지역어가 우리에게 풍부한 언어학적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의 민족 문화 유산(자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면, 지역어를 반영한 지명도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충분한 것이다.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래하는 지명 자료를 수집, 발굴, 정리, 보존, 활용하는 일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국어 문화유산으로서 소멸 위기의 지명을 발굴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기존의 자료가 정리되고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어야 한다. 나아가 음성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통합 DB로 구축되어야 한다.

<소결> 지명에 담긴 한국의 지역 문화와 전통을 세계화하면서 동시에 한국 문화와 전통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글로벌리즘), 그렇다면 지명도 세계와 동질화하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로서 이질적인 면을 찾을 수 있는 문화 유산이다.

<활용> 문화콘텐츠화, 지역교육활용(초중등)²⁹⁾, 다문화 가정 교육 자료 등

<제언> 지역어와 지역 문화가 반영된 국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지명

- 기존 자료 정리 및 신 자료 발굴
- 음성자료 디지털화
- 통합 DB 구축
- 문화 콘텐츠 활용

29) 예를 들어, 중학교 참고도서로서, '대전의 역사와 문화(2010)'가 있다. 대전 지명에 대한 유래와 더불어 산, 천 등 대전 지역의 전래 지명에 관한 특징들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지명에 대한 교육적 활용의 예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곽재용(2007), 지역 교육 자료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지명의 언어지리학적 연구 방법,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5-46.
- 김정태(1996),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1), 한국언어문학 제37집, 한국언어문학회, 41-58.
- 김정태(1997). 전래지명어와 방언과의 상관성 고찰(2), 어문연구 25-2호(통권 9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84-99.
- 김정태(2008), 지명어의 탈락과 축약 현상에 대하여, 어문연구 58, 어문연구학회, 51-76.
- 김정태(2013), 도시언어에 대하여, 어문연구 75, 어문연구학회, 33-56.
-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2014), 대전의 세거성씨(上,下), 대전광역시.
- 대전시사편찬위원회(1994), 대전지명지.
- 도수희(1994), 지명 연구의 새로운 인식, 새국어생활 제4권 제1호, 국립국어원, 3-27.
- 도수희(2010), 한국 지명 신연구-지명 연구의 원리와 응용-, 제이앤씨.
- 성희제(2010), 전래지명어의 후부지명소 설정 문제에 대하여, 지명학 16, 한국지명학회, 245-265.
- 이돈주((1971), 지명어의 소재와 그 유형에 관한 비교 연구 - 지명의 유연성을 중심으로 - 한글학회50돌기념논문집, 한글학회, 353-387.
- 천소영(2001), 지명연구에 쓰이는 술어에 대하여, 지명학 5, 한국지명학회, 97-118.
- 한국방언자료집 IV(충청남도 편)(199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발표 2>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

- 기존 지명 제정 법·정책과 관련하여 -

오창명(제주대)

목 차

1. 서론
2.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
3. 기존 제주 자연지명의 문제
4. 마무리

1. 서론

「지방자치법」(1949년 법률 제32호로 제정 / 2009. 4. 1. 일부개정. 법률 제9577호 / 2013. 3. 23. 타법개정. 법률 제11690호)이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 제11943호 일부개정 2013. 07. 17.), 「지명법 안」(2013. 7. 25. / 경제법제국 심사의뢰요청 2013. 7. 30. / 국회제출 2013. 12. 31.) 등을 보면, 우리나라 지명은 크게 행정지명, 자연지명, 인공지명, 해양지명 등으로 나누고 있다.

1. “행정지명” : 「지방자치법」 등의 법률로 정한 지명
2. “자연지명”이란 마을, 산, 하천, 호수, 산맥, 고개, 섬 등(제4호에 따른 해양지명은 제외한다)과 같은 자연적인 지형지물의 이름을 말한다.
3. “인공지명”이란 도로의 부속시설물(터널, 교량, 교차로 등) 댐, 저수지, 공원, 주차장, 역, 공항 등과 같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시설물의 이름을 말한다.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대상은 제외한다.
4. “해양지명”이란 자연적으로 형성된 해양·해협·만(灣)·포(浦) 및 수로 등의 이름과 초(礁)·퇴(堆)·해저협곡·해저분지·해저산·해저산맥·해령(海嶺)·해구(海溝) 등 해저지형의 이름을 말한다.

<이상 「지명법안」>

* ‘자연지명’이라 하더라도 하천은 「하천법」, 국립공원에 관한 명칭은 「자연공원법

」, 관광지 등은 「관광진흥법」에서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기존의 「측량법」 등을 통해서 정한 제주의 자연지명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주의 자연지명 제정의 문제, 지명 유래와 지명 유래집 오류의 문제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문제와 오류와 관련하여, 기존 법과 정책을 통한 자연지명의 제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 지명 관련 법과 정책에 따라, 제주의 자연지명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기존 제주의 자연지명 유래와 유래집 내용에도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제정·공포된 제주의 자연지명에 문제가 많았다는 데서 ‘제주의 자연지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을 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을 담고 있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기존 제주의 자연지명 제정과 공포, 정비를 가능하게 했던, 관련 법과 그 과정을 보이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제정되어 공포된 자연지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등을 밝히려려고 한다. 그리고 새로 제정되어 시행될 「지명법」을 바탕으로 한,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과 공포, 지명 유래집 발간에서는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발표를 매조지하려고 한다.

2. 제주의 자연지명의 제정

3. 기존 제주 자연지명의 문제

4. 마무리

이상 본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제정·고시되어 지형도에 표기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지명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지명의 말소리가 제대로 조사되어 정리되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다.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지명이 지금까지도 지형도에 표기되어 인쇄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말소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했으니, 그 유래나 의미를 설명하는 데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형도 위에 지명을 표기하면서 제 위치에 표기하지 못하고 엉뚱한 위치에 표기한 것도 많다. 심지어는 본디 이름을 표기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름을 표기한 것도 많다.

왜 이러한 오류가 생겼는가?

첫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조사 대상지의 지명을 제대로 조사해서 보고한 자료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명을 제대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민간에서 불리는 이형(異形)의 지명이나 이칭(異稱)의 지명을 제대로 조사하고, 각 형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보고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지명 제정에 참여하는 담당자와 지명제정위원(현재는 지명위원)들이 지명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발행된 일부 지역 지명 유래집에는 지명 전문가가 전혀 참여하지 못했다. 더욱이 일부 지명 유래집은 지명 전문가가 써놓은 것을 앵무새처럼 그대로 옮긴 것이 많다. 이러한 것이 여태껏 반복되고 있으니 지명이 제대로 제정되거나 정립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명법」이 새로 시행될 듯하다. 「지명법」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명 제정을 하려면 지명 전문가가 기초 조사와 자료 수집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지명위원을 선정할 때도, 지명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사는 배제해야 한다. 퇴직 공무원을 선심 쓰듯이 위원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 일정한 비율로 여성을 의무적으로 위원에 배정하라고 해서 지명에 대해 문외한인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도 배제해야 한다.

기존에 제정되어서, 1대 5천 지형도와 1대 2만 5천 지형도에 표기된 제주 자연 지명은 전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이나 국토포털 등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지명 유래에 대해서도 수정되어야 한다.

재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질 때 기존과 같은 제정 방법, 기존과 같은 지명위원 선정 등으로는 자연지명이 제대로 기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지명법」을 제정한 기관에서 심각해서 반성할 일이다.

참고문헌

-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I』,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제주시 · 제주문화원(1995), 『제주시 옛 지명』.
진성기(1960), 『제주도 지명의 유래』, 제주도 관광 안내소.
진성기(1975), 『남국의 지명 유래』, 제주 민속 총서 7, 제주민속연구소.
한글학회(1984), 『한글학회 지은 한국지명총람 16: 전남편IV · 제주편』.

<발표 3>

도로명 주소, 무엇이 문제인가

손희하(전남대)

목 차

1. 머리말
2. 현행 도로 명 주소의 구조와 체계
3. 현행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
4. 대안과 정책 제안
5. 맺음말

1. 서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땅과 바다에도 이름이 있다. 인간이 땅과 바다에서 터를 일구며 살아가며, 이 생활 터전에 자연스레 이름(지명)을 붙이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명은 자연 환경과 생활 문화를 반영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알기 위해서는 지명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다(손희하·김경, 2009. 나주 혁신 도시 수용 지구 지명. 빛가람, 천년의 빛으로 흐른다).

2014년에 들어 정부에서는 주소 체계를 동명에서 도로 명으로 바꾸었다. 그 동안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지적이나 면담은 있었으나, 문제점을 적시한 글은 드물다.

이 발표는 도로 명 주소 체계의 제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주소명 정책 수립과 시행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4년(일제 동명 통폐합 100주년): 도로 명 주소 시행함

2007년: 도로 명 주소법 제정함

1995년: 생활주소라는 이름으로 추진함

2. 현행 도로 명 주소의 구조와 체계

○○로 △△번길 ×× - □□

1) 도로 위계

대로- 8차로 이상, 40m 이상.

노: 2차로~7차로, 왕복 12m 이상.¹⁾

길: 왕복 1차로, '노' 이하.

2) 건축물의 주소

우측으로 짝수번호

좌측으로는 홀수번호

3) 좌우 구분

좌우 구분하는 방법은 도로방향 기점을 남에서 북 방향으로 잡아서 좌우, 그 다음에 서에서 동으로 가는 방향을 잡아서 좌우, 20m마다 번호가 2개씩 증가함. 20m 구간 속에는 여러 건물, 아파트의 동과 호수로 붙이도록 함.²⁾

3. 현행 도로 명 주소의 문제점

1) 문화 역사 면

① 전래 고유 문화 파괴 및 망실

과거 일제 강점기에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우리 고유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지명을 일본이 대대적으로 없앴는데, 그나마 남은 아름다운 고장이름이나 동 이름 등 우리 전래 고유 문화를 이번 현행 도로 명 주소에서 국민이 느낄 만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문제임.

1)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 자료에 보면 '로'로 표기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한글 맞춤법>에 어긋남.

2) 동명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많아 필요할 경우에는 맨 끝에 괄호를 달아서 동명을 쓸 수는 있다.

보기: 재동, 쌍촌동, 양립동, 두암동, 유동, 궁동, 사직동 등등 조선시대부터 써온 이름들임.

도로 명 주소 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하는 동명을 없애고 국가의 주소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업인데도 안전행정부는 기반 조사와 시행 검토 과정에서 지명학, 지리학, 역사학, 문화학 성과와 관계자들의 충언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들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도로 명 주소 사업 시행에 따라 전래 지명이 점차 사라져갈 위기에 처해 있다. 동명 대신에 도로 명 주소를 쓰도록 하는데, 전통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도로 명 주소를 유연성(有緣性) 없이 새롭게 바꾸 지었기 때문이다. 지명이 생활문화와 자연 환경을 반영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저 길 찾거나 주소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명이 단순한 길 찾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네스코 등에서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동네나 길과 인연이 없는(유연성 없고) 가변적(可變的)인 도로 명을 새로 짓고 전래 지명을 폐지하는 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

② 문화 공동체 파괴

지명 변경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우려, 마을 문화 변질 우려가 있다. 지명 변경으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마을 문화 변질은 일제 강점기에 이미 경험했기에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③ 문화 차이 간과

▪ **골목길 문화:** 서구는 도로를 중심으로 인공적으로 계획해서 도시가 발달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자연지형에 따라 골목길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발달한 것이다. 곧 골목길 문화와 마당 문화의 차이를 간과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노래나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주 올레길이라는 말도 골목 문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문화서구는 길가에 바로 집이 자리 잡은 것이다.

▪ **향남 문화:** 향북 기준- 전통 향남 문화 간과함

보기: 우청룡좌백호(右靑龍左白虎) ← 좌청룡우백호(左靑龍右白虎)

2) 정보 기억 인지·저장 면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면' 중심의 동 주소에서 '점'과 '선' 중심의 도로 명 주소로 전환함. 면 인식에서 선 인식으로 감에 따라 인지 면에서 더 어려워짐.

② 2차원 → 1차원으로 저차원화하여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짐. 그것도 일시에 사람들에게 기억 부담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옴.

③ 음절수 과다한 것 많음.

자하문로28가길, 남대문시장2가길, 사직대로176번길, 상봉중앙로6나길

노인이나 기억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1971년 영국 화폐단위 10진법화 후 자살자 다수 발생한 사례를 보면 심각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³⁾

통일대로는 47.6킬로미터- 과연 지리정보 개념이 설까? 인식 인지가 곤란하여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보임.

→ 길 찾기는 스마트폰이나 네비게이션 등을 활용하고 국민 마음이 편안하게 하고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가야— 특히 노인이나 기억 장애인을 생각해야 할 것임.

3) 국민 행복 추구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위 정보 기억 인지 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지고, 그것도 일시에 사람들에게 기억 부담과 고통과 혼란스러움을 가져오게 되어 국민 행복 추구 면에서 동떨어짐.

4) 문화 향유 추구 면

위헌소송 제기에서 알려진 것처럼, 현행 도로 명 주소는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면에 어긋나고 국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함. 곧 문화 향유 추구, 국민 행복 추구 면에서 문제임.

문화계·학계에서 지명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위헌소송을 제기함.

3) 영국의 화폐 단위 제도 개정의 경우, 십진법 개정안을 1824년에 의회에 상정하여 처음 부결된 이후에 147년간 논의를 거쳐 1971년부터 시행하였다. 영국은 10진법 이전에는 12진법·20진법, 21진법·5진법·2진법을 혼용하였다.(1파운드=20실링, 1실링=12펜스, 1기니=21실링, 1크라운=5실링, 1플로린=2실링.)

헌법소원 내용: "도로명주소법은 헌법 제69조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와 제9조 국가의 전통문화보존 의무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문화향유권도 침해한다."

5) 주소 체계 면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기억하기 어렵게,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로 되어 주소 체계 면에서 더 복잡해짐.**

정부에서는 찾기 쉬운 숫자식이라고 주장함. 그렇다면 가장 찾기 쉽고 세계적으로도 통용할 수 있는 경위도 좌표식 주소는 왜 채택하지 않는가를 생각해야 함.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너무 위계적, 너무 작위적, 길의 구간이 너무 길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인은 과학적 체계적인 것보다는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것을 원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 할지라도 복잡하면 시행하기 전에 사용자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주소를 처음 '○○로 ××'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계속해서 문제점이 드러나자 '○○로 △△번길 ×× - □□'로 하는 등 더 이상 현행 동명 주소보다 더 간편해진 게 없다. 오히려 '천 몇의 몇' 등 더 복잡해지고, 길고 바꾸다 보니 누더기꼴이 된 것이다. - 애초 구상에서 어긋나 버렸다. 이는 외국 계획 도시 등 현상만을 모방하려다 그런 것이다. 우리나라는 일제 이후 조성한 길이나 마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연지형대로 이루어진 길과 마을 모습이기에 근대에 이루어진 서구와는 다른 모습이다. 곧 1) 문화 역사 면 ② 문화 차이 간과 면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도로를 인공적으로 계획하여 조성한 곳에 적용한 방식을 우리나라처럼 자연지형에 따라 골목길이 난 곳에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다. 곧 **골목길 문화와 마당 문화의 차이를 간과한 처사로 보인다.** 이는 노래나 어린 시절 추억을 상기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제주 올레길이라는 말도 골목 문화를 상징한다. 반면에 문화서구는 길가에 바로 집이 자리 잡은 것이다.

그리고 주소 체계 면에서도 서구 것보다 매우 복잡해졌다. 도로나 집의 형태가 바뀌면 주소 체계를 바꾸어야 한다.

②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좌우를 훌쩍으로 구별하는 등 얼른 보면 체계적이고 그럴 듯하나, 시골이나 서울 구도심을 가면 자연 지형을 따라 골목이 형성된 곳이 많아 직선이 아니라 곡선으로 길이 난 곳이 대부분이고, 이 길도 한 바퀴 돌다보면 좌우가 바뀐다.**⁴⁾ 좌도우도 아닌 골목 마지막 중앙에 있는 집도 있다.⁵⁾

4)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생태를 파괴하고 생태에 반하여 자연을 관리하려고만 드는 인간에서 벗어나 곡형 자연은 곡형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자연이라는 무한 다각을 유한 다각화하려 하지 말 것임).

저차원의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있는 자연을 단순하게 줄이는 억지를 모든 인간이나 자

시골은 수백 미터 이상 떨어져서 집이 띄엄띄엄 있는데, 앞으로 중간에 집이 생기면 ‘몇의 몇의 몇’으로 나가 주소를 기워야 할 판임.(집 사이에 집을 못 짓게 하지 않는 이상)

도시도 여러 집 합쳐 큰 건물 들어서면 번호가 이빨 빠진 듯하고, 어떤 곳은 몇 ‘의 몇의 몇’으로 나가게 될 전망이다.

6) 도로의 가변성 면

①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도로의 가변성을 간과함. 도로나 집의 형태가 바뀌면 주소를 다시 바꾸어야 함.

②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도로 없는 곳은 번지를 붙일 수 없어 번지가 다 사라짐.

도로 없는 곳에 경우에는 ‘국가지정대로’라 해서 전국을 10m씩 바둑판처럼 격자(그리드)로 나누어 번호를 계획이라 하나, 일반인은 기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7) 길 찾기 면

① 정부는 도로 명 주소가 바둑판식, 모눈종이식이라 좌표처럼 찾기 쉽다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 도시가 경지 정리 식으로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형을 이용해 생겨난 마을임.

또 골목도 많으며, 특히 골목의 경우, 빙 도는 골목의 경우도 있어서 한바퀴 돌다 보면 좌우가 달라져 번호를 매기기 쉽지 않음. 판판하게 밀어버린 신도시 주택 단지에서는 찾거나 인지가 쉬울지 몰라도 지역이나 도시 달동네, 이런 데는 힘들.

② 현행 도로 명 주소가 내세우는 최대 장점인 길 찾기 면은 단적으로 말하면 다들 요즘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하다고 함. 10여 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정책과 밀어붙이기식 시행이라는 평판임.

오히려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은 기왕의 길찾기 도구에서는 ‘지명’을 잘못 치면 없다고 나왔으나, 현행 길찾기 도구에서는 숫자를 잘못 치면 엉뚱한 곳에 데려다 주어 혼란과 시간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만약 50킬로미터가 다 되는 통일대로나 길의 숫자 입력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연에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실은 ‘.5’로 표기해야 바를 것이다.

8) 선진국형 제도 면

이웃 선진국이 다 쓴다면서 오이시디 국가 운운하며 현행 도로 명 주소를 밀어붙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한 것임.

이웃 중국을 보면 일부 도시는 도로 명식 주소를 적용하나 안 쓰는 곳도 매우 많다. 또 미국, 서구 등 외국 주소는 현행 도로 명 주소에 비해 간단하고 찾기 쉽다.

서구 선진국식이라고 하는데, 서구와 달리 기억하기 어려운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이다. 서구는 짧은 거리 길 이름인데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서구식보다 개념이 잘 안 서고 인지하기 어렵고 못하고, 개선한다는 것이 오히려 누더기가 된 풀인 주소 정책이다.

효율이나 경제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일본이 왜 시행을 안 하는지, 왜 안 바꾸는지를 눈 여겨 보고 숙고해 봐야 한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엔 등의 기구에서는 오히려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명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주무관이 여럿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13년말 지명 보고에서도 언급함)

9) 정책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왕권 강화를 위해 한화 정책(漢化政策)을 근간으로 하는 제도 개혁을 단행한 신라 '경덕왕'의 중국식 지명 변경에 필적할 만한 중대한 사업이면서도 정책 수립과 시행 초 20년 동안 국민의 관심조차 모으지 못한 정책임. 곧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실패했다는 말이 돈 2013년 이전에도 비판을 많이 받은 바 있는 정책임. 정착하는 데에 짧게 10년, 30년~90년으로 봄.

안전행정부 주소정책과장도 주된 사용자가 우편 · 택배 ·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송경주, 지역정보화지 78, 도로명주소 새주소). 이미 20년 전부터 (1995년부터) 추진하기 시작했고, 2014년 전면 시행하였으며, 날마다 언론에 홍보하고 있지만, 그동안 국민 대부분이 자기 주소도 모르고 있다고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강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용이 저조하다. 도로명 주소에 반발하며 아예 옛 주소를 고집하는 사람도 많다. 지금 엄청난 홍보비 들여 홍보하고 강제로 무조건 쓰라고 억지 쓴다고 될 일이 아닐 것이다.

10) 주민 행정 관리 면

주민 행정 관리 면에서 결국 예전 동 단위 개념은 버릴 수 없을 것임. 현재 동 주민 센터 같은 경우 동단위로 행정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노'나 '길' 단위로 주소를 운영해야 한다면 과연 주민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예전 동 개념을 버릴 수 없다면, 결국 이중으로 행정과 인력과 비용을 낭비가 가능성이 크다.

11) 일제 잔재 청산 면

현행 도로 명 주소는 일제 잔재 청산 면을 강조하고 있음. 그렇다면 오히려 일제 강점기 문화 말살 정책에 살아남은 법정지명을 없앨 것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사라진 지명을 되살려야 함.

보기: (1789년 호구총수) 동면(東面) 기례방리(奇禮坊里) 성저(城底) 시리(市里) 하리(下里) 보통(普通) 상루(上樓) 신촌(新村), 공수방(公須坊) 상하촌(上下村) → (1914년) 수기옥정(須奇屋町) → 수기동(須奇洞)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 당시에도 천자호(天字號), 지자호(地字號), 현자호(玄字號), 황자호(黃字號) 등 지호(지번)를 매겨 주소를 부여했다.

“지번은 일제가 1910년에 식민 통치와 조세 징수 등 식민지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그래서 바꾸어야 한다고 홍보한다. 그럼 지번제 없애면 조세징수 안 한다는 말인지 궁금하며, 지금 지번제 때문에 아직 우리가 일본의 세력 밑에서 꿈쩍 못하고 있다는 말인지 궁금하다.⁶⁾

4. 대안과 정책 제안

적어도 길 찾기 위한 도로 명과 지명을 분리해야 한다. (∵ 지명은 단순 길 찾기 도구용 이름이 아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문화가 배어 숨 쉬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 동명 지명은 그대로 두고,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지명을 되살려야 한다.

사라지는 지명, 문화유산을 보존해야 한다. 곧 재개발 택지 개발 공단 들어서는 지역, 저수지 등등 지형 변개 지역 지명 조사 정리 반드시 필요하다.

6) 우리 사회에서 상대방을 꿈쩍 못하게 할 때에 잘 써먹는 무서운 말 두 가지가 있다. 건뽕하면 (걸핏하면) 빨갱이요, 일제 청산이라는 말이다. 생각할 겨를 없이 여론몰이로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지명에서 일제 청산을 제대로 했으면 한다. 참고삼아 말하면 일제청산 하려면, 우리 법 문장부터 바꾸어야 한다. 일제의 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것이 우리 법이기 때문이다.

5. 맺음말

최근 새 도로 명 주소 사업 시행에 따라 전래 지명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동명 대신에 도로 명 주소를 쓰도록 하는데, 지형, 역사, 문화, 전통을 무시한 채 도로 명 주소를 유연성 없이 새롭게 마구 지었기 때문이다. 지명이 생활 문화와 자연 환경을 반영하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이 아니라 그저 길 찾거나 주소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지명이 단순한 길 찾기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선진국 등 다른 나라나 유엔 등의 기구에서는 지명을 문화유산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추세임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현행 도로 명 주소 사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전승하는 동명을 없애고 국가의 주소 체계를 바꾸는 엄청난 사업인데도 안전행정부는 기반 조사와 시행 검토 과정에서 지명학자들의 성과와 충언을 제대로 활용하거나 들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중대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앞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통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 명 주소는 문화 역사 면[전래 고유 문화 파괴 및 망실, 문화 공동체 파괴 우려, 우리와 외국 문화 차이 간과], 정보 기억 인지·저장 면('선' 중심의 도로 명 주소가 면 인식에서 선 인식으로, 또 음절수 과다한 것 많아짐에 따라 인지 면에서 더 어려워지고, 기억해야 할 정보 양 더 많아짐.), 국민 행복 추구 면, 문화 향유 추구 면, 주소 체계 면(기억하기 어렵게, 길고 복잡한 숫자 나열식 도로 명 주소로 되어 주소 체계 면에서 더 복잡하고, 자연 지형을 따라 골목이 형성된 우리 현실 여건에 알맞지 않고, 정부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선진적이라고 하나 일반인은 과학적 체계적인 것보다 복잡하지 않고 편리한 것 원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 정책은 국민 행복 추구, 문화 향유 돕는 쪽으로 가야할 것이다. 국민 복지와 국민 권익을 화두에 올리는 현 시점에서는 특히 노인 등 기억 장애인을 생각해야 한다.

예산 면에서 이미 4000억 원 이상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버렸는데, 밀고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만 두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앞으로 들 돈은 국민 기억, 심적 고통 비용, 문화 향유, 행복 추구 등등 수조원이 넘을 것이다. 다음 비유가 이 지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을 잘못 들어 부산 다 와서 알아차렸다면 그냥 부산으로 가야할까? 아니면 방향 틀어 서울로 가야할까?

참고문헌

『戶口 總數』(1789)

국토지리정보원(2013), 국가지명위원회 자료집.

손희하·김경(2009), 『나주 혁신 도시 수용 지구 지명. 빛가람, 천년의 빛으로 흐른다』.

송경주(2013), 『지역정보화지』 78, 도로명주소 새주소.

조명래(2014), '도로명 주소'...혼란 어떻게 줄일까?, 와이티엔 2014. 1. 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2&aid=0000496022>

조선총독부(1912),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영인판,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태학사, 1997.